손, LA 전설 시작됐다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
토트넘도 "위대한 선수 쏘니가 LAFC로 떠났다" 이별 공식화
손 "MLS 도전 기대·우승하러 왔다…토트넘, 언제나 내 가족"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하고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된다면 만 37세 가까이 될 때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8월 입단한 토트넘에서 간판스타로 맹활약하던 손흥민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3일 고별전 이후 이날 공식적으로 LAFC 선수가 됐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MLS는 손흥민을 '아시아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토트넘의 레전드' 등으로 표현하며 예우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인사했다.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뛰게 된 그는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날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첫선을 보인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LAFC는 오는 10일 시카고와 리그 원정 경기를 앞뒀다.

손흥민은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는 '친정팀'이 된 토트넘도 이별을 알리면서 10년간 손흥민의 업적을 상세히 전했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썼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짚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며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적이) 이제까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 토트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고 언제나 내 가족일 것"이라며 "내가 이 놀라운 구단을 위해 이룬 게 자랑스럽다. 어려서 이곳에 와서 어른이 돼 떠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구단과 모든 스태프, 선수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토트넘은 또한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MLS 축구팀 기자회견에서 로스앤젤레스FC의 새 유니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6위 광주FC "포항전 목표는 다득점 승리"

10일 K리그1 원정경기…아사니 이적 논란 속 새 외국인 프리드욘슨 활약 기대

광주FC가 '승리'를 목표로 포항원정길에 오른다.

광주FC는 오는 10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맞대결을 갖는다.

포항은 '리그 3위'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다.

광주는 리그 24경기에서 8승 8무 8패(승점 32)를 기록하면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원정길에서 만나는 포항은 10승 5무 9패(승점 35)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승점 3점 차에 있는 포항과의 승부인 만큼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대결이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순위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광주가 올 시즌 25골을 기록하고 있고, 포항이 30골을 터트리면서 5골 차이가 난다.

광주는 다득점 승리를 목표로 이번 원정길에 오른다.

여름 휴식기를 보낸 광주는 앞선 경기의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포항전을 준비했다.

광주는 최고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쳤다. 수원FC에 1-2패를 기록했고, 김천상무와는 1-1 무승부였다. 전북현대와의 대결에서도 1-2로 지면서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수원FC,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승점을 내줬다. 아쉬움은 있지만 2위 김천상무와 1위 전북을 상대로 물러섬 없는 광주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광주는 2주간의 휴식기를 보내면서 재충전을 끝냈다.

여기에 새로운 전력도 가세했다. 광주는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196㎝' 장신 공격수 홀름베르트 프리드욘슨을 영입했다.

압도적인 피지컬이 돋보이는 프리드욘슨은 큰 신장에도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서 광주의 공격 옵션을 넓혀줄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팀과 손발을 맞춘 시간이 짧았던 만큼 포항전 활약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제공권을 강화하면서 광주의 남은 순위 싸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항전을 앞둔 광주에 고민은 있다.

'에이스' 아사니가 최근 K리그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아사니는 지난 3일 SNS를 통해서 이란 명문 에스테그랄의 이적을 공식화했다. 아사니는 에스테그랄이 공개한 "아사니와 1년 6개월 계약을 맺었다. 광주와 계약 만료 후 합류할 예정이다"라는 이적 발표 게시글을 공유했다.

구단과는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아사니의 불편한 동행을 놓고 광주는 고민에 빠졌다. 여기에 아사니는 포항전에 앞서 종아리가 불편해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로테이션이 포항전 키가 될 전망이다. 순위 싸움을 위해 중요한 승부를 앞둔 광주가 앞선 3경기 아쉬움을 딛고 기분 좋게 8월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여름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10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순위 싸움을 재개한다. 헤이스가 공격 전면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FC 제공〉

뉴캐슬 꺾은 '팀K리그' 애장품 기부 경매 동참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영국)를 꺾은 팀 K리그 선수단이 기부 경매 캠페인 '팀 K리그 원 오브 원(One of One)'에 동참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브레이크앤컴퍼니와 함께하는 '팀 K리그 원 오브 원'에 유니폼과 트레이닝복, K리그 40주년 스웨트셔츠 등을 포함해 팀 K리그 선수단의 다양한 애장품을 출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트레이닝복은 팀 K리그 선수단이 오픈 트레이닝 당일 실제 착용한 제품으로 선수별 등 번호와 경기 정보가 새겨져 특별함을 더한다는 게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이번 경매를 기념해 팀 K리그 선수단 단체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경매 및 유니폼 증정 이벤트는 오는 12일 오후 10시 30분까지 브레이크앤컴퍼니의 카드 거래 플랫폼 '브레이크'(BREAK)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